

尹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 노타이로 “한마음” 외치며 시작

삼청동 총리공관...전원 노타이 참석 권성동 “대자 빼서 안좋은가” 농담 한덕수 “오늘의 이슈, ‘한마음’ 같다” 이준석 “당정, 불편할 용기” 고언도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협의회(대통령실 포함)가 6일 ‘한마음’을 외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열렸다. 경제 위기를 주제로 당정이 ‘원팀’이 되자는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선 공약 폐기 문제를 들어 “당정이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는 참석자 전원 ‘노타이’ 복장으로 진행됐다.

권 원내대표가 회의를 20여분 앞두고 가장 먼저 도착해 매고 있던 넥타이를 풀고 다른

참석자들을 기다렸다. 정부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 측의 이진복 정부수석과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곧바로 도착했다.

이준석 대표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회의의 5분 전쯤 마지막으로 도착하면서 당-내각-대통령실의 환담이 시작됐다. 주제는 ‘당정대’ 명칭 변경이었다. 과거 ‘당정청’으로 불렸던 3자간 회동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서 ‘당정대’로 불렸는데, 대통령실도 정부의 일부라는 취지에서 ‘고위 당정협의’로 명칭이 변경됐다.

권 원내대표는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당정

에서 ‘대’를 뺐더니 기분이 안좋으신가”라고 웃으며 농담을 건네며 “당정청에서 ‘당정대’보다 고위 당정회의라고 하면 어떤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표님이 빠신 게 아니다”라고 웃으며 받았다.

한 총리는 음료를 들고 좌중에 “오늘의 이슈는 한마음인 것 같다”며 건배 제의를 했고, 한 총리가 ‘윤석열 정부’를 외치자 참석자들이 ‘한마음’이라고 후창하며 좌우 건배를 나눴다. 한 총리와 권 원내대표, 성일중 정책위의장은 이후 ‘새 정부 100일 작전’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한편 11시 정각에 시작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고언(苦言)이 나오기도 했다. 한 총리와 김대기 비서실장 등 정부 측은 별다른 표정 없이 이 대표의 발언을 들었다.

이 대표는 “대선 공약을 통해 이야기했던 많은 정책들이 아직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당정은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중 정책위의장.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첫 고위 당정 협의 공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을 의 개회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당정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부의 성

정승호기자

尹 지지율, 부정평가 53%...긍정 42.5%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10%포인트 이상 상회했다는 결과가 6일 나왔다. 2주 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상회한 ‘데드크로스’를 기록한 데 이어 그 격차도 커지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씨사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8명에게 묻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지난 조사 대비 2.7%포인트 하락한 42.6%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3%로 3.2%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관이 한 달 전 조사했을 당시 부정 평가가 40.2%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4주 만에 10%포인트 이상 오른 셈이다.

긍정과 부정 간 격차는 10.4%포인트로 오차

20·40대 60%가 부정평가

범위 밖이다.

특히 20대와 4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지난 조사 당시 53.4%에서 한 주 만에 61.3%로 올랐다. 40대는 57.9%에서 66.1%로 급등하며 지지율 하락세를 이끌었다.

이 외에도 ▲30대(부정 50.4%, 긍정 45.6%) ▲50대(부정 59.3%, 긍정 39.3%) 등 대다수 연령대에서 부정평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만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55.8%로 부정평가(37.2%)에 앞섰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부정 33.5%, 긍정 62.2%)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

경기·인천(부정 54.7%, 긍정 40.5%), 대전·충청·세종(부정 50.9%, 긍정 46.5%) 지역은 지난 조사 당시 긍정 평가 비율이 더 높았으나 한 주만에 지지율이 역전됐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유나기자

尹 정부, ‘능력·전문성’ 인사기준에 미달하는 후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비서실장, 윤 대통령, 박 부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의 인사원칙 비판과 관련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후보자 중 능력과 전문성이 모자라다고 밝혀진 인물이 있었는가. 최소한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사는 스스로 정한 인사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표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한 비판을 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철

野 ‘부실인사’ 비판에 “민주당이 정한 인사 기준” “文정부, 인사 5대 원칙 16명이 하나 이상 논란”

학과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꼬집었다.

앞서 박형수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윤석열 정부의 장관 인사로 ‘부실인사’로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비서실장부터 무능한 인사검증 라인을 문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인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5대 원칙을 거론하면서 “언론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무총리와 장관급 인사 22명 중 총 16명이 5대 원칙 중 하나 이상에서 논란이 되었고 상당수의 후보자는 직접 사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기존 5대 원칙에 성별외와 음주운전을 포함한 7대 인사 원칙을 발표했는데,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 대상 총 112명 중 68%에 달하는 76명이 이 인사 기준에 미달했다”면서 “본인이 국민들께 직접 약속한 5대, 7대 인사 원칙을 거의 지키지 않았음에도 문 전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꼬집

었다. 그러면서 “오래전 과거에 과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능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며 “과거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있고 이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다면, 역량이 있는 사람에게 능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인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교를 해서 (국민의힘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니다. 민주당이 우리를 비판하는 데에는 먼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 기준으로 인사기준을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정한 기준은 능력과 전문성”이라며 “거기에 모자라다면 비판해도 되지만 민주당 자신이 정한 그 기준에 미달한다고 비판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이슬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